

-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이윤호(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1333동 1003호)
외 21,862명
- 소개의원 :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 접수일자 : 2017. 3. 27.
- 회부일자 : 2017. 4. 6.

2. 청원요지

- 신정차량기지는 주변 2만 7천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건강 및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 신정차량기지와 연접한 은정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근접해 있는 계남초등학교와 목동고등학교는 차량기지로부터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음
- 이에 지난 28년간 서울시의 발전과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인내했던 차량기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거주지 한복판에 자리잡은 차량기지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소개의원 요지

- 신정차량기지는 1992년 6월 건립되어 2호선 운행 전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주변 2만 7천세대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차량기지가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건가 및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신정차량기지의 이전이 시급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가결
 -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면밀히 검토
 -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후보지) 선정시 부터 관계기관(양천구, 강서구,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5. 검토의견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약 2만7천 세대와 은정, 갈산, 계남초등학교 및 목동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침해와 불편 그리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인 신정차량기지의 이전을 요청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양천구 신정동 276일원(양천구 목동로 3길 41)에 위치한 신정차량기지는 면적이 234,286㎡, 상주인원은 1,115명¹⁾으로 1992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평일 기준 약 90편성의 열차가 차량기지를 입·출고²⁾하고 있음

1) 상주인원(1,115명) : 차량 495명, 승무 279명, 기술센터 등 236명, 협력업체 105명

【 신정차량기지 현황 】

| 구분 | 대지면적(m ²) | 주요 건축면적(m ²) | | | 유치선 | 건물 |
|-------|-----------------------|--------------------------|--------|--------|-----|-----|
| | | 관리동 | 주공장 | 검사고 | | |
| 차량기지 | 234,286 | | | | 44 | 13동 |
| 종합관리동 | 11,733 | 1,898 | | | | |
| 주공장 | 37,403 | | 36,920 | | | |
| 검수고 | 22,410 | | | 22,410 | | |

- 서울시는 2019년에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³⁾하였으나 원종~홍대선과 신정차량기지 통합이전은 경제성이 낮고, 관련 자치단체(부천, 강서)의 반대로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2020년 현재 ‘2·5호선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4월중으로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용역기간 약12개월)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와 함께 이전 대상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선행되어 함
- 신정차량기지는 차량기지의 특성상 늦은 밤과 새벽시간대에도 전동차

2) 신정차량기지 일일 열차 편성

| 구분 | 입·출고 | 평일 | 휴일 |
|----|------|-----------|-----------|
| 오전 | 출 고 | 34 | 21 |
| | 입 고 | 16 | 2 |
| 오후 | 출 고 | 11 | 6 |
| | 입 고 | 29 | 25 |
| 계 | | 90 | 54 |

※ 평일 오전(5시 반~09시) 2호선 전체 출고 열차 59편성 중 34편성이 신정기지에서 출고

3) 서울시 설명자료 : 양천 ‘신정차량기지’ 이전 무산(2019.12.5. 이투데이)

-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성, 주민수용성, 관련지자체 협의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고, 특히 갈산공원 주변지역은 양천구청역에 인접하고 있으나 차량기지로 가로막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